



포토막江의 작은섬

文 莊 寅

워싱턴 D·C를 벗어나 서쪽으로 66번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포토막江을 건너고 버지니아로 들어선다. 남쪽으로 그 유명한 아링톤 국립묘지가 있어 참배자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지만 도로는 북쪽으로 가다가 다시 서쪽으로 굽어 숲속의 주택가로 이어지는데 차가 북쪽으로 달리는 동안, 우측으로 셋강을 사이에 두고 숲이 우거진 그리 크지않은 섬이 보인다. 지금은 관심있는 사람들이나 찾아가는 좀 한적한 데오돌·루즈벨트 섬이다.

1932년에 미국국회가 지정한 88에이커(약 36정보)의 이섬은 나무난간으로 된 步道가 유일한 통로이며 숲과 언덕과 습지로 이루어진 원생상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데오돌·루즈벨트의 동상과 함께 4개의 어록비가 이섬을 지정하게 된 유래를 잘 설명해준다. 그는 자연에 대한 어록비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한 생활에는 기쁨이 있고 원생지에 숨겨진 신비와 아름다움 그리고 명상하는 정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다음 세대에게 값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자연자원을 잘 관리하는 국가는 발전할 것이며, 보존이라 함은 보호 뿐만아니라 이용을 위한 개발을 포함한다”는 요지의 말을 하고 있다.

1901년에서 1909년까지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가 남긴 이 말은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금의 국립공원 운동에도 충분한 지표가 될만하며 우리나라 보다 95년 앞선 미국의 국립공원 운동에 밀거름이 된상 싶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 제국주의 세력들이 우리 한반도를 넘보고 있을 무렵, 일본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하는 이른바 데프트·카쓰라 밀약이 데오돌·루즈벨트의 대통령 재임시기였던 것에 想到하면 공은공, 과는과로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야릇한 심정이 되지않을 수 없다.

정보화시대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세계대전의 도발국이었던 동서독일마저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이제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은 한반도에 다시 불어올 열강의 바람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정치·경제계는 국내외의 북방정책에 뒤질세라 온통 야단법석인 때에 워싱턴·포토막江물에 떠있는 작은섬을 생각하면서 과학문명의 발전과 함께 전 인류적인 자연보호와 국립공원운동이 슬기롭게 전개되어 지금부터 백년후에도 자연의 한 구성 因子로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이 地球村에 존재할 것인지 명상에 잠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도 23년의 年輪이 쌓인 요즘 각계의견이 매스콤을 통해서 활발히 개진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TV가 주도하는 대규모 캠페인 경향을 막논하고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많은 기사들은 우리사회가 그만큼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는 증거가 된다, 등산취사 금지 등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해야할 문제들도 많다. 다시한번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에 대한 조사·연구의 제도화, 이용자에 대한 홍보·교육의 강화, 자연공원에 대한 투자확대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筆者：本會副會長·國立公園管理公園理事·自然保護中央協議會理事]